



최재상 마티아 신부 作

십자가 현양

가톨릭 성가 30번은 형벌의 도구, 죽음의 길인 십자가를 노래합니다. 승리하리라, 구원의 길이라 십자가를 찬미합니다. 구리 뱀이 높이 들어 올려지듯 하느님의 어린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심을 찬양합니다.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요한 12,24)라는 당신의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열매를 인간에게 무상으로 선물하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들어 올려지십니다.

“우리는 다른 피조물들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소임을 받은 관리인입니다. 우리도 지구 생태계 안에서 함께 공존하는 가족 구성원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탐욕과 오만으로 하느님과 자연을 거슬러 저지른 죄를 뉘우치고 속죄하는 생태적 회개로 나아가야 합니다. 무절제하게 개발하고, 생산하고, 소비하고, 버리는 생활 양식을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한국 천주교 주교단 기후 위기 성명서, 〈기후 위기, 지금 당장 나서야 합니다〉, 2020년 5월 8일.) 절제와 배려의 태도를 수반하는 생태적 회심은 폭력적인 소비 문화를 “돌봄의 문화”로 바꾸는 출발점(『찬미받으소서』, 231항 참조.)이자 한 알의 밀알이 되려는 의지입니다.



생태적 죄와 생태적 회개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기후 변화의 문제, 생태 위기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스도교가 어느 정도 그 원인을 제공했다고 누군가가 비판한다면 여러분은 그 말에 공감하시겠습니까?

미국의 역사학자인 린 화이트 주니어 Lynn White Jr.는 <사이언스>지에 기고한 자신의 논문, 「우리의 생태론적 위기의 역사적 근원들 (The Historical Roots of Our Ecological Crisis Science 58, 1967)」에서 유대교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교는 다른 피조물을 '인간의 의도'에 봉사할 뿐 다른 목적이 없는 존재로 이해하는 인간 중심적인 종교라고 평가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과 기술이 생태계에 미친 결과를 볼 때, 과학과 기술에 의해 통제를 넘어서는 힘을 인간에게 부여한 그 근원이 그리스도교의 자연신학과 자연에 대한 그리스도교적 인간 초월성의 실현이라고 볼 때, 현대의 생태적 위기에 대해 그리스도교는 그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비판하였습니다.

린 화이트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렵지만, 그런데도 그리스도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인간 중심적이며, 인간을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스스로 분리하여 인식하도록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가톨릭교회교리서」는 모든 피조물의 고유한 선에 관해 이야기하면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하기 위해 “하느님께서 모든 것을 인간을 위하여 창조하셨다.”(가톨릭교회 교리서 356)라고 말하는데, 이는 교리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인간과 다른 피조물과의 조화보다 다른 피조물이 단지 인간을 위해서만 존재한다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2000년이 넘는 그리스도교의 역사 안에서 교회가 환경의 문제, 생태의 문제,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느님과 인간, 피조물과의 관계에 대해서 성찰하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입니다. 교회 안에서 환경의 문제와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에 대한 현대적 해석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은 1971년 바오로 6세 교황께서 회칙 「팔십주년 Octogesima adveniens」에서 인류를 위협하는 문제들로서 광범위한 차원에서 생태 위기를 언급하시면서부터입니다.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하느님의 뜻에 따라 창조질서 안에서 인류 발전을 위해 사용해야 할 자연을 인간 “스스로 자연을 불법 사용함으로써 자연을 파괴할 위험에 직면하고 인간 스스로가 도리어 이런 타락의 희생물이 될 위험도 없지 않음을 느끼게 되었다.”라고 언급하시며, “모든 것을 경제성과 상업성, 힘과 유익성으로만 측량하려는 유혹을 물리쳐야” 한다고 경고하셨습니다. 바오로 6세 교황의 환경문제에 대한 교회의 공식적인 언급으로 시작된

환경 보호에 대한 교회의 견해와 가르침은 후대 교황들에게서 더 구체화하고 확장 발전되었습니다. 단순히 이는 사회에서 말하는 환경 보호의 차원을 넘어서 그리스도교의 창조관을 바탕으로 한 인간과 자연의 올바른 관계에 대한 숙고가 반복 확장되어 교황들의 가르침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가르침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에서 통합되고 발전되었습니다.

교회의 가르침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찬미받으소서」 회칙은 환경파괴와 생태 위기의 문제를 주목해 오면서 2가지 점을 현대의 생태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에게 요구되는 자연 질서와의 조화를 경제적 이익에 따라 무시하는 행태이고, 다른 하나는 과학 기술에 대한 맹목적인 믿음과 무차별적인 적용입니다. 즉,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그분께서 사랑으로 새겨 놓으신 창조질서 안에서 조화를 이루며 하느님의 선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여기서 창조질서를 보호하며 하느님의 선을 지켜야 할 인간이 자신의 경제적 이익과 편의를 위해서 그 질서를 파괴해 왔다는 점과 피조물들은 저마다 고유한 선과 완전성을 지니고 고유한 방법으로 하느님의 무한한 지혜와 선의 빛을 반영하는데 과학과 기술은 그 피조물을 대상화하고 도구화함으로써 지배와 착취를 해왔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윤의 극대화와 무한한 발전에 맹목적인 과학 기술 지배의 패러다임이 세계를 이해하는 지배적인 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계에 대한 이해는 결국 우리가 뿌리내리고 살아야 할 공동의 집인 지구라는 환경을 이용 가치와 이익으로만 판단하게 함으로써 관계성을 잊게 만들어 버리고 결국 파괴합니다.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성의 파괴는 결국 인간과 인간, 인간과 창조주의 관계성을 단절하고 파편화함으로써 자연과 인간 사회 모두를 위협하는 문제로 발전하게 됩니다. 즉, “자연 세계에 짓은 죄”(「찬미받으소서」 8항)는 인간에게 다시 위협으로 다가오게 됨은 물론 하느님의 창조질서를 파괴하였기에 죄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교회의 바르톨로메오 총대주교와 프란치스코 교황께서 함께 말씀하시는 ‘생태적 죄’입니다.

성경적, 신학적 의미에서 죄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을 거슬러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행위입니다. ‘생태적 죄’라는 것은 하느님과의 단절의 의미를 단순히 인간과 하느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하느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의 단절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태적 회심’은 단순히 자연 파괴와 착취에 대한 것만이 아닌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 인간과 하느님과의 모든 관계를 회복하는 회개입니다.

작은형제회 김석찬 호노리오 신부

샌디에고 *Franciscan School of Theology* 대학원, Master of Arts

「프란치스칸 전통 안에서 생태적 회개 고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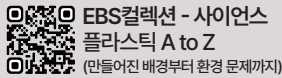
탄소 발자국*을 줄입시다!

*글자체: 빙하체, '노타입' 개발, '글자 축'을 활용해 북극해 빙하가 녹아가는 모습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이번주 빙하량연도는 2030년입니다.

실천사항 4 재생하기_Recycle

'분리수거'의 불편한 진실

2024년 분리수거 방식 변화(적발 시, 최대 20만원까지 과태료 부과)



페트 생수, 음료, 식품을 담았던 용기만 페트 배출
그 외 페트 일반 플라스틱 분리배출

플라스틱
HDPE LDPE PS PP PVC
HDPE ~ PVC: 플라스틱 분리배출

플라스틱
OTHER 위의 재질이 아닌 단일 재질 및
2가지 이상의 플라스틱 재질이
복합된 것
재활용 불가, 일반쓰레기 배출

플라스틱

뚜껑에 달린 스프링 등을 분리하기 어려울 시,
일반쓰레기로 배출

분리 후 깨끗이 씻어 재활용

재질별로 분리하여 배출
분리 안될 시: 일반쓰레기, 지자체 조례에 따라 배출

재활용 불가
>> 지자체에 따라 처리 방법 다름

즉석밥 OTHER 표기 - 재활용 불가
CJ(햇반)에서 독자적으로 수거해 재활용

알쏭달쏭 재활용

비닐

라면, 과자 등 비닐 포장지 접지 않기
두껍고 무거워져 기계에 들어가지 못함
> 과태료 대상, 깨끗이 씻고 말려 비닐로 배출
용기 라벨자: 용기에서 분리하여 비닐로 배출

음식물

쓰레기 구분 기준

동물이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 먹을 수 없는 것!
일반쓰레기로 배출

수박껍질
잘게 자르고
물기 제거한 후,
음식물쓰레기로 배출



함께! 해요, 올바른 재활용

순환거버넌스



[폐가전제품 무상방문수거 서비스] 이용하기
폐가전(소형 5개 이상~대형) 무상방문 수거 후,
유해물질을 안전하게 처리한 후 자원 재활용함
수익은 저소득 가정 지원 등 복지 기금으로 사용됨
전자제품뿐 아니라 폐휴대폰도 수거함.

페트병의 재발견

국수 1인분 계량기

: 주둥이 부분 갈때기보다 더 짧게 자르기



페트병 갈때기

: 주둥이 부분 자르기 - 잡곡류 사용 용이

전기 콘센트 페트병 뚜껑 막이

: 먼지를 막아주며, 아이들의 사고를 예방



페트병 수경 화분

: 반을 잘라, 뚜껑을 닫아 뒤집어 물을 채워 사용
물 갈이시, 뚜껑을 열어 쉽게 물 배출 가능

